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자란 것은 소리내지만
가득찬 것은 소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가득판 연못과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5호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佛心 대신 '票心' 불자 의원 어디에

20대 국회 정각회 13일 출범… 입회 36명 불과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인원이 매회 줄고 있어 불교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각회는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서 20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입회했다. **〈7월 7일 집계 결과〉**

정각회 회원이 4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14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정각회는 1981년 11대 국회 정각회 출범 당시가 69명 · 12대 7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3대 56명 · 14대 33명 · 15대 43명 · 17대 40명 · 18대 59명 · 19대 42명이었다. 16대에는 정각회장 자리를 두고 여야갈등이 빚어져 구성되지 못했다.

정각회 회원 감소 이유는

20대 정각회장으로는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상태며 유승민, 김정훈, 백승주 의원 등 새누리당 26명, 추미애, 신경민, 정춘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18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대 정각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정각회 소속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총선 당시 19대 정각회 소속 의원이 대거 공천에 탈락한 여파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중 불자의원 수는 18대와 19대를 넘어선 62명이다. 정각회 회원이 줄어든 이유는 초선의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대 정각회장으로 내정된 주호영 의원은 "새로이 당선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상황에 불자임을 밝히길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 입회원서를 낸 36명 외에 의원 3명이 가입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출범 이후 회원 가입이 이뤄지기에 4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지역구 상황이란 무엇일까. 19대 정각회장을 맡은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지역 유권자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정각회 가입은 불자임을 공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구가 교회세가 강하면 전면에 나서기 꺼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자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이웃종교계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신교계인 국회조찬기도회는 110명, 가톨릭신도회는 56명으로 정각회 회원 수를 넘어섰다. 국회 내 종교에서 불교는 사실상 3순위로 전락했다.

불교계 관계 모호…지원 줄어

국회의원 종교모임은 종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정각회의 경우 불교 관련 각종 법안 발의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자율적인 신행단체인 까닭에 종단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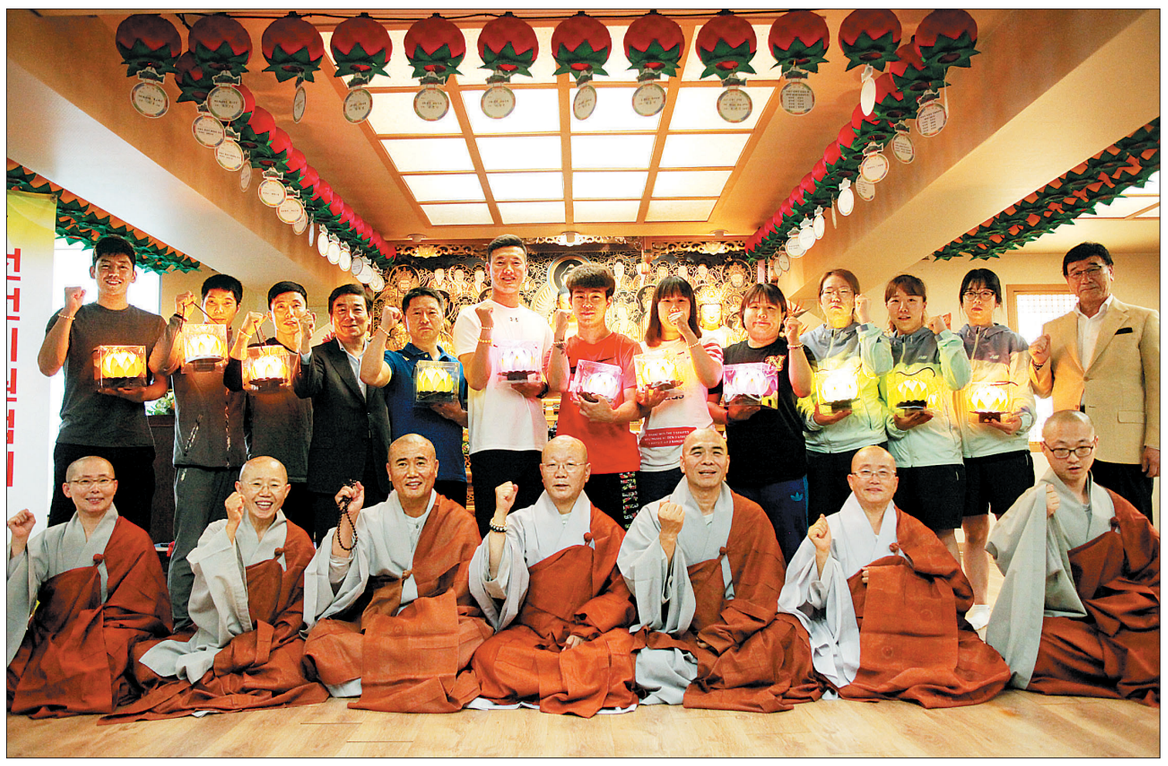
최윤영 조계종 포교원 주임은 "정 · 관계 신도단체는 종교편향 문제로 단체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각회의 경우 특수성으로 조계종

10년 내 최저치, 초선 가입 저조
개신교 · 가톨릭 이어 3순위 전락
"지역서 불교색 드러내기 힘들어"
종교편향 논란에 단체 지원 난색
불자 네트워크 모임 등 관심 촉구

대외협력실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관계 설정 자체가 모호하다. 이런 가운데 신도회 차원의 후원도 최근 줄어 든 상황이다. 18대 정각회 당시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당선인 축하법회를 비롯해 고문 · 부회장 위촉해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팀장은 "공식적으로 의원들이나 정각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불자 국회의원들이 정각회 가입을 해야지만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련 조계종 종책특보는 "불교포럼 등 불자 네트워크 모임에 불자 국회의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며 "정각회는 개원 이후에도 접수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각회와 불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피가 메달로 이어지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부담감은 크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스님들이 선수촌을 찾았다. 사진은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이 7월 6일 봉행한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스님과 선수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모습. **글 · 사진= 윤호섭 기자**

로터스월드 · 청수나눔회 만해평화대상 수상

동국대,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마리안느 · 마가렛 수녀 실천대상
이미자 · 이승훈, 공동 문예대상
오는 8월 12일 시상식 개최



올해로 20회를 맞는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불교계 국제개발 NGO단체인 로터스월드와 원불교단체인 청수나눔실천회가 수상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제20회 만해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평화대상은 국제개발 NGO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청수나눔실천회(이사장 박청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국제개발 NGO 단체 로터스월드와 청수나눔실천회는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동남아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 등을 건립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실천대상은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 · 마가렛 피사레크 수녀가 받게 됐다. '할매 수녀'로 불리던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와 한센인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쳤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된 이들은 만해축전의 주제인 '생명과 화해'를 솔선해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예대상은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아방가르드 시인 이승훈 씨에게 돌아갔다. 이미자, 이승훈 씨는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유지를 기리는 만해축전은 올해로 18회째를 맞는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와 동국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심작품상 시상을 비롯해 만해 72주기 추모행사,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창종 70년 맞는 진각종 '금강원 무진서원불사' 종단·국가 발전 기원

7월 25~27일 회당문화축제서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공연도

올해는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진각 70년을 맞은 의미있는 해이다. 그래서 해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서 열리는 2016 회당문화축제에서도 '진각 70년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라는 특별한 행사도 함께 봉행된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며, 울릉도 일대서 펼쳐진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문화체험마당과 공연마당, 금강원 무진서원불사 등으로 진행된다.

우선 첫 선을 보이는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는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금강원서 열린다. 진각 70년을 맞아 종단과 국가발전을 서원하는 대중동참 불사로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해 전국 신교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이날 불사에서는 △진각종 70년사 영상 상영 △통리원장 법어 △진각 70년사 봉정 △서심결정식 △음성공양 △종단 발전과 진호국가 서원을 담은 풍등 비상식 등이 열린다.

둘째날 열리는 '무진서원불사'가 한국 밀교 정신을 구현하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종교행사의 성격을 띠었다면 셋째날 열리는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마당이다.

27일 오후 7시 30분 도동항 가설무대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는 그룹 장미여관과 가수 한영애, 동덕여대 DDAM밴드 등 호화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특별문화 체험마당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동항 소공원서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올해는 진각 70년을 맞아 금강원 무진서원불사가 회당문화축제의 한 축을 이뤄 장엄하게 봉행할 예정"면서 "역대 최고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이에 걸맞게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진각복지재단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도 5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25見 천도(遷度)란?

마음은 살아 있는 자에게만
있는것도 아니고
죽은 자(영가)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기에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다만
업(業)의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신령스럽고 부사의(不思議)한
무설설(無說說)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천도(遷度)란?
삼세(과거 · 현재 · 미래)가 평등히
짓는
이 무설설(無說說)의 업(業)의 경계를
바뀌게 하는것이요
깨닫게 하는것이며
법열(法悅)의 한 맛을 장엄하는 것이요
무생법인의 근본지혜를 일깨우는 것이다.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